

# 꽃 피고 열매 맺는 전북 실현

### 전북도, 지휘부·전 실국이 국가예산 확보에 전력

전북도가 민선6기부터 다져온 정책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꽃 피고 열매 맺는 도정(春竹秋實 道政)을 실현하기 위해 지휘부 및 전 실국이 국가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북도 국가예산 확보 활동 배경에는 최근 정부 예산 편성기조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있어 삼각농정 농생명산업, 미래신산업, 여행·체험1번지, 새만금·팜버리 등 도정 핵심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설명 활동으로 기재부 단계에서 최대 예산을 담기 위해서이다.

이원택 정무부지사는 민선7기 1주년 첫날인 7. 1일 기재부 예산실장, 재정관리관, 산업정보, 문화예산, 행정예산과장 등 주요 인사를 방문 면담하여 기재부 단계에서 증액해야 할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부지사가 기재부 핵심인사에게 보내 지역 생명공학 인프라와 연계하여 글로벌 수준의 국가검정기준에 맞는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설계비 5억원 반영과 주력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과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이끌 수 있는 지속 성장에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군산항 자동차 수출물동량 확보를 통한 침체

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 역할을 할 '중고자동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구축비 50억원과 '조선기자재기업이 해상풍력구조물 제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업종전환 지원'을 위한 인력양성 및 기술사업화 국비 90억원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전북지역에 특화된 교육 운영으로 미래 자동차 산업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육성을 위해 '전북 중소기업연수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0억원 반영을 요청했다.

멋스런 전북 역사·문화 및 관광산업 육성을 다시 찾고 머무르고 싶은 대한민국 여행·체험 1번지 조성을 위해 전북의 우수한 국학자원을 발굴, 보존·정리 및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국학기관으로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설계용역비 5억원과 태권도 체험프로그램 확대 등을 태권도원의 활성화를 위해 태권도원 복합체험시설 건립 사업비 67억원, 고대 봉수 및 제철유적이 분포되어 있는 '장수국가 유적 복원정비사업'을 위해 고분복원 정비 등으로 국비 24억원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형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현재 예타가 진행중인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금강3지구)'과 부처에서 기재부에 제출된 '호남고속도로(삼례



~김제) 확장', '개야도 국가여행 개발사업'의 예타 통과 건의와 함께 3/4 분기에 신청예정인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 '새만금 내부순환형 도로 건설', '새만금 아트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기재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익산 왕궁, 김제용지 현업축사 오염원 저감을 위한 '익산왕궁 현업축사 매입비' 123억원, '김제 용지 축사밀집지역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을 적극 건의했다.

전북도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기재부 예산심의가 마무리되는 8월말까지 지휘부 등이 기재부 릴레이 방문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쟁점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국회의원 및 14개 시장군수와 공동 협의의 대응하기 위해 4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농식품 분야 적극행정 사례를 추천해 주세요”

### 농식품부, 대국민 참여 소확행 적극행정 경연대회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2019년 7월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적극행정 실천 사례와 공무원에 대해 추천을 받는다.

국민·농업인은 누구나 농식품부 소속 공무원이 규제개혁, 적극적 법령 해석 또는 적극적인 업무 처리 등으로 일자리 창출, 농업·농촌의 활력을 제고, 국민·농업인의 편익이나 체감 만족도를 증진시킨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경우 추천이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농림축산검역

본부, 한국농수산대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식품부는 추천받은 사례를 포함하여 매년 상, 하반기 두 차례 소확행 적극행정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사례, 공무원을 발굴, 포상하여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적극행정 국민추천제 및 콘테스트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과 농식품부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이를 통해 국민·농업인이 생각하는 적극 행정의 사례를 발굴하여 우수 사례를 조직 내부에 공유시킴

으로써 정책수요자 지향적인 행정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온라인 등을 통해 추천 후 외부 전문가의 서류심사(1차 평가)와 국민과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적극행정 경연대회(2차 평가)를 거쳐 우수 사례, 공무원을 선정하고, 우수자에게 인사가 특전을 부여하며 포상한다.

아울러, 채택된 사례·공무원을 추천한 분들에게는 우수 농축산물이나 농식품 가공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계기로 적극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조직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 하반기 198명 채용 예정

전북도는 올해 하반기 전라북도 산하 13개 공공기관에서 198명을 신규 채용하는 채용계획을 통합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채용유형은 공개경쟁 185명, 경력경쟁 13명이며, 특히 장애인 제한경쟁으로 7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채용계획 통합공고는 지난해 마련한 전라북도 공공기관 직원 채용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전라북도 산하에 대해서는 지역국회의원 및 14개 시장군수와 공동 협의의 대응하기 위해 4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서 확인할 수 있고, 취업관련 게시판 등에 통합공고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해당기관 채용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기관별 공고 일정을 참고하여 반드시 해당 기관의 채용공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도는 이번 하반기 채용계획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장애인채용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3.4%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하는데 정원증원 및 기존 장애인 직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 이를 준수하지 못한

기관은 금년도 하반기 채용계획에 장애인 제한경쟁 실시로 고용의무를 준수할 예정이다.

장애인채용 예정인 기관은 전북개발공사 1명, 전북연구원 1명, 테크노파크 2명, 군산의료원 1명, 여성교육문화센터 1명, 문화관광재단 1명 등이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채용계획 통합공고는 도민들에게 공공기관 일자리 정보를 널리 알림으로써 공정한 채용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라면서 "앞으로도 채용비리 근절과 도내 공기업·출연기관 등의 경영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농촌진흥청, 스마트팜 산업 발전 위한 발판 다진다

###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와 협약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1일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회장 박원출)와 본청 제2회의실에서 '스마트팜 기술 고도화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은 농업의 혁신 성장, 스마트팜 기술 개발과 표준화, 농가 교육·보급 등에 두 기관이 뜻을 같이 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팜 모델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기술 교류 △스마트팜 기술 개발 수요 조사와 분석 △스마트팜 보급과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기술 혁신 △제도 지원 등이다.

또한, 각 기관의 기술 자원인 스마트팜 연구 개발 결과(농촌진흥청)와 정보통신기술 기자재·시스템 표준화, 농가 교육(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연계로 성과를 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1일 전주시 농촌진흥청 제2회의실에서 열린 '농촌진흥청-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업무 협약식'에서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오른쪽) 박원출 회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두 기관의 기술과 자원을 활용한 협력 체계를 마련해 스마트팜 산업 발전과 농업의 혁신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 전국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를 전국 모든 돼지농장으로 확대하여 진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북한 ASF 발생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접경지역 등 14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

고 점검반을 편성하여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농장 소독과 생석회 도포, 정밀 검사 등을 진행해왔다.

ASF 정밀검사는 특별관리지역내 돼지농장(5.31.~6.11.), 전국 남은 음식물 급여농장(6.7.~14.), 전국 방목형 농장(6.17.~21.)에 대해 단계별로 실시하였고,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6월 17일부터 전국

돼지 밀집사육단지 농장(49개 단지)에 대해 ASF 임상 관찰과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다. 전국 모든 돼지농장(약 6300호)으로 확대하여 8월 10일까지 ASF 정밀검사를 진행 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ASF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농장과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국가 방문을 자제하고 농장에서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해외 방문 후 입국 시 농장출입을 5일간 금지할 것, 농장에 대한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 전북대, '의학과 농식품의 만남' 학술대회 개최

'제27회 기초의학 학술대회'가 지난 6월 28일 전북대 의대 및 간호대에서 개최됐다.

'의학과 농식품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는 대한의사학회와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생리학회 등 기초의학과 관련한 11개 학회를 비

롯해 농촌진흥청 등 5개의 관련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학술대회에 총 800여 명이 등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특히, 이번 학회에서 열린 주관대학 심포지엄에서는 전북지역에 있는 농식품 연구원 및 센터, 그리고 원자력연구원 등이 참여한 의학과 농식품의

연계와 관련 분야 연구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실무자들이 참여해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의농식품 산업의 적용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또한 점심시간에는 주요 관계자와 학회 참석자들이 같이 대형 비빔밥을 비비는 행사를 통해 학회 및 기관 간의 소통과 연계를 모색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